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선망조상님과 인연영가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선희궁 원당에 만년위패를 봉안하고 그곳에 아미타불 부처님을 새롭게 모시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서방정토의 극락세계에 머무르시면서 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을 성불시키시는 불보살님이십니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수명을 가지고 한없는 광명을 지니시는 부처님으로
뭇 생명 있는 자들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위없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주사의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는
불자님들께 참으로 뜻깊은 불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그 인연의 공덕으로 현세의 무량복덕을
누리시고 내세에서도 극락왕생하시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과 중생들이 아미타불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희궁원당 아미타불 조성불사 : 한가족 **50**만원 (복장에 이름 넣어드립니다)
불단조성불사 : 한가족 **30**만원

- **선희궁원당 불사계좌안내** : 농협 **351-1333-5675-83** (법주사)
- **문의 및 안내** :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4 | 12

벽화이야기 대웅전 오른쪽 만자 / **이달의 법문** 자비행을 널리 실천합시다! / **주지스님 법문** 부처님의 자비원력 / **걸망메고** 불교란 부처님이다 / **수행여화** 나무이운불사 / **감로의 글** 어의운하 / **법주사 템플스테이** / **을사년 인등접수 및 연장안내**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생일불공** / **갑진년 동지기도** / **送舊迎新도** / **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대웅전 오른쪽의 만자



만자卍字문양은 연화문과 더불어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양으로서 부처님의 가슴에 나타난 표시이며, 성덕聖德과 길상吉祥을 나타낸다. 만자卍字가 있는 곳에는 길상만덕吉祥萬德이 모이는 곳이다. 기원은 태양의 빛이나 우주의 흐름을 상징하며 산스크리트어로 Svastika, 팔리어로 Svatthika라고 불리며 길상해운吉祥海雲 또는 길상희선吉祥喜旋의 뜻이다.
모양은 오른쪽으로 도는 우만자와, 왼쪽으로 도는 좌만자로 크게 나누어진다.
인도의 옛 조각에는 좌만자가 많으나, 중국 · 한국 · 일본에서는 굳이 구별하지는 않는다.
《수행본기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수행할 때 풀방석을 깔고 앉았는데,
방석 잎의 모양새가 卍자인 길상초였다는 것이다. 이후 卍자는 불교를 상징하는 기호가 됐다.
《화엄경》 제48권에서는 "여래의 가슴에는 훌륭한 분의 특징인 '만자'모양이 있다.
이것을 길상해운吉祥海雲이라고 부른다."라고 한다.
미국불교도들은 만자문이 영어의 L자 4개를 붙인 것과 같다고 해서 4L 정신을 지키고 있다.
라이프(생명), 라이트(빛), 러브(사랑), 레이버(노동) 정신이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4 12 | 통권 395호



2 **벽화이야기** 대웅전 오른쪽의 만자
4 **이달의 법문** 자비행을 널리 실천합시다!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부처님의 자비원력慈悲願力 정덕 스님
10 **걸망메고** 불교란 부처님이다 지현 스님
12 **수행여화** 나무이운불사 현진 스님
14 **감로의 글** 어의운하於意云何 고광 스님
17 **법주사템플스테이**
18 **을사년 인등접수 및 연장안내 / 법주사 행사일정**
19 **법주사 소식**
20 **미륵재일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광명진언기도**
21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생일불공**
22 **갑진년 동지기도**
23 **送舊迎新**
24 **선희궁 원당 아미타불 부처님 조성불사안내**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8(단기4357)년 12월호 통권 395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남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자비행을 널리 실천합시다!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연말이 되면 요즘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공공기관 주도의 나눔 행사들도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어 가슴 훈훈한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가령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이나, 김장 나눔, 또는 라면이나 기타 생활용품 및 장학금 전달,
그리고 다양한 바자회 행사 등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자비 나눔 행사는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는 활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신 월주 큰스님께서는 과거 저에게
금강경의 핵심이 뭐냐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소승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을 보되 상을 지우고 보면 부처를 보리라)"
"그러면 상을 보되 어떻게 상을 지우고 보느냐?"라고 물으시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 있지 않으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마음을 어떻게 내나요?" 했더니,
"무주상無住相 보시, 집착 없는 보시, 결과에 개의치 않는 무주상 보시가 있지 않으냐.
무주상 보시가 바로 그 궁극점이니라."

스님께서는 불교의 근본은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행동은 요익중생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셨으며, 요익중생과 무주상 보시의 베푸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스님은 또한 사람을 대하는 데에 있어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웠던 점이 특징입니다.
정화 운동 초기에 대처승들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단 한 명도 강제로 옮기거나 싸우거나
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자비 보살의 현신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극락이 따로 없고 중생 모두가 본래 부처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이 사바세계에는 온갖 차별화된 모습을 하고 있고, 빈부귀천이 존재하며,
온갖 고통이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소승은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물질문명의 고도화와 더불어 핵가족화된 우리 사회에
정보 전달의 과학기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지만,
정작 마음의 소통과 상호 존중의 정신문화는 얼마나 성숙하였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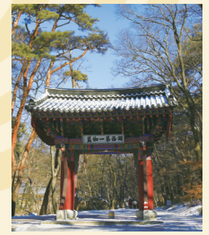
가끔 주변에 차림새가 몹시 누추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또는 조직 내에서
유난히 튀고 선을 넘는 사람, 또는 매우 어리석어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등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무개는 어떤 사람" 등의 말이 오가고 그 사람을 향해 낙인을 찍거나,
불현듯 증오의 화살을 겨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정은 싹 무시하고 원리 원칙과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악업의 씨앗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면서 과정과 이유를 알아내겠지요.
그리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라는 말을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의 아래에'를 뜻하는
Under와 '서다'를 뜻하는 Stand의 합성어입니다. 즉, 누군가의 입장에 서보는 것을 뜻합니다.
한자어로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을 겪는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시점에서부터 상대방의 시각으로 시종일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문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결 방법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허물이 있는 자를 볼 때, 다짜고짜 비난하기보다는
'나도 언젠가 저럴 수 있다. 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보다 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이해부터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적하거나 조언할 것이 있다면,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침묵, 또는 말을 가려서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역지사지의 사유 방식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계율 정신입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비롯하여 계율의 내용 대부분은
실로 자신이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입니다. 나의 목숨이 소중하고,
나의 소유물이 소중하듯 남들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생활에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불교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자비의 정신부터 가르쳤습니다.
나아가 대승불교의 깊은 이치에서는 불이不二 사상을 설하고 있습니다.
나와 남, 깨끗하고 더러운 것, 생성과 소멸, 모양이 있는 것(有)과 없는 것(無) 등의
상대적인 모든 개념이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본질을 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 화엄종의 일진법계一眞法界의 개념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 만물은 이미 하나로 연결된 진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면 받을 것이요, 빼앗으면 뺏길 것이며, 선행을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요, 악업을 지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원인과 결과는 세월이 흘러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과의 법칙이나 자비 사상 등을 잘 알고서도 역경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은 좁아지고, 자비 사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시대에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혹 자비심을 내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잃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비슷한 경우의 일이 우리 주변에 무척 많겠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많은 역경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염불이나 참선, 주력, 독경, 사경, 절 수행 등 여러 수행 방편을 평소에 닦으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힘을 얻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고통도 소멸할 수 있는 지혜와 복덕과 온갖 방편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법(진리)의 즐거움을 스스로 누리고,
나아가 이웃들에게도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수행해야겠지요.
우리 모두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비의 행을 사회에 널리 실천할 수 있도록
원(願)을 세워 정진하고, 또 정진합시다.

부처님의 자비원력慈悲願力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염불念佛 해야 부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라디오를 켜야 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하겠네요?"
내가 스위치를 켜거나 안 켜거나 관계없이 방송국은 방송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라디오를 켜지 않으면 방송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간에 상관없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부처 만들겠다고 전력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부처 만들겠다는 자비원력慈悲願力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문을 듣고 염불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자비원력을 알지 못하죠. 라디오를 켜지 않으면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자佛子란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난 사람〔불구소생佛口所生〕'을 뜻합니다.
즉, 부처님의 법문法門을 듣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에 다니면서 무작정 부처님한테 매달린다고 해서 불자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처님 법문에는 관심이 없고, 부처님께 매달리는 것이 불교인 줄로 알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법회法會에 다니는 것은, 정말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법문에는 내용이라든지 형식에 한계가 없습니다. 꼭 불교佛敎라고 간판이 붙은 곳에만
불법佛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진리를 그대로 내어 쓸 수 있는 지혜를 여는 것은
다 법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기의 힘을 발견한 스티븐슨에게 있어서는 주전자 뚜껑이 법사法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법문하겠습니다.' 하는 형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그 법문의 내용이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 《금강경金剛經》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무한히 발전시켜서 부처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보이든 상관없이
전부 법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법문을 듣고 진리를 드러내어 그것을 나와 이웃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이 온통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근기根機에 맞게,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면
다 법문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 먼저 얘기한 것과 뒤에 얘기한 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엄마들이 젖을 잘 안 먹이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젖 말고 먹일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애를 낳더니 젖을 너무 먹입니다.
그러니 자꾸 애가 똥을 싸니까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젖 좀 그만 먹여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우리 시어머니는 젖 좀 그만 주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겠지요.
그때 작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는 아이에게 젖을 안 먹여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한테 "젖 좀 먹여라."라고 합니다.
가만 생각하니 시어머니는 줏대가 없습니다.
언제는 젖을 먹이지 말라고 했다가, 어느 땐 젖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냐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법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을 고쳐주는 약이니까, 어느 땐 동쪽으로 가라는 것
같고 어느 땐 서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용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원력으로 그때마다 방편方便을 쓰시는 겁니다.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면 모두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문을 듣는다는 것에는 언제든지 배우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는 자세로 살아갈 때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불교란 부처님이다

지현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부처님은 누구신가? 잘 아시다시피 '아미타(Amita)'이 십니다. 아미타의 뜻은 '계산할 수 없다'입니다.

아미타의 '아' 자는 부정 접두사고, '미타'는 계산하다, 측정하다의 뜻입니다. 측정할 수 없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진실은 아미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자리할 곳이 없고, 현재 속에서의 불안도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예 쓸데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후회도, 불안도, 걱정도 부처님에게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불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도하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케 하며, 편안하지 못한 사람을 편안케 하고, 열반하지 못한 사람을 열반케 하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는 모두 법회에 와야 하나니 법문을 듣기 위함이니라." 아수라는, '나는 남들보다 잘나고, 엄청나게 출세했어.' 또는 '나는 적당히 잘 살아가고, 효도나 하고, 애들 키우며 사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끝없이 긍정적인 것을 쫓아가거나 탐욕스럽게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컫습니다.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는 모두 법문을 듣기 위해, 법회에 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법문을 듣는다 함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法' 자에 '문門' 자를 씁니다. 법의 문, 생명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귀로 들었으니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법문 들었거든!" 하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에 비춰보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닮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처님께서 생동하고 계심을, 그리고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불교일 따름입니다.

생명의 문에 들어설 때 비로소 부처님 생명으로 살겠다는 거죠. 부처님 생명으로 살겠다는 것은 누구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사장으로서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모습들의 근본 자리를 뜻합니다. 근본의 자리로부터, 부처님 생명으로서 아내 노릇하고, 부처님 생명으로서 아들 노릇하고, 부처님 생명으로서 사장 노릇을 하고, 부처님 생명으로서 운전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조건이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나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나를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는 온통 부처님의 화신들만 태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순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모순이 아닙니다. 나의 모순이죠. 누군가의 모순된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 안에 살아온 업이 맑혀져야 되는 순간이고, 누가 잘 사는 모습이 보인다면, 거기에 대해 우리는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회사 동료가 됐건, 눈에 띄고 귀에 들린다면 그건 다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너의 문제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우린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쉽게 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많이 맞고 자란 분들은 상당수가 때리는 부모가 됩니다. 남들한테 구설수에 올라서 수많은 악담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자기가 남들을 악담하는 사람으로 변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선언하신 두 가지의 입장 표명입니다.

첫 번째, 나는 인과론자다. 두 번째, 나는 정진론자다.

부처님 생명이 부처님 생명일 수 있는 것은 인과법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과를 믿는다 함은 인과를 전면수용 하는 것입니다. 전면수용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이든 안 드는 것이든, 모두 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과라고 하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법칙성에 따라서, 벌어질 것이 벌어졌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기하여 일어나는 것일 뿐,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나 잘나고 못남, 또 좋고 나쁨이라는 상대적 가치관을 대입시킬 여지가 없습니다. 노름으로 돈을 땄다는 것은 누군가가 잃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상대적 기준 하에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과론자라 함은, 나에게 벌어진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럼 정진론자는 무엇인가?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모든 생명들을 정화시킬 책임이 나에게 있고,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명의 키는 나로부터 열립니다.

예를 들어 모순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고 합시다. '남의 부모는 저렇게 좋은데 왜 내 부모는 이럴까?' 하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저래?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이들 같으면 야단이라도 치죠. 어른은 그럴 수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속앓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꾸로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은 더 넘쳐납니다. 그럼 나에게 그것이 닥쳤을 때, 그것은 나와 상대되는 저쪽 즉, 부모와 자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입니까? 네! 나의 문제라고 우리 불자님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나로부터 입니다. 이제는 '저놈 때문에 속 썩어' 하는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요 꼴이야.'라는 소리도 안 나오겠죠? 왜? 우린 인과론자이니까!

결국 인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용을 뜻하는 것이고, 완전한 수용이란 것은 온통 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믿는다면, 부처님이 선언하신 대로, 나로부터 밝아지는 수행 정진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이운불사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아주 오래 묵은 나무 한 그루를 옮겨오는 일로 며칠 동안 분주했다. 현장에서 이곳까지 나무를 이송하는 과정부터 터를 잡아 심는 일까지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온통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에 정원이 생긴 후 최대의 나무가 전입신고를 마친 것이다. 그래서 정원 식구로 들여놓는 작업을 '이운移運불사'라 말한 것이다. 하긴, 나보다 더 나이 먹었을 나무를 절집으로 모셔오는 일이니, 불보살의 존상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온갖 우로풍상을 겪으며 견뎌온 그 나무에게 인격과 존경을 부여하여 내 사는 곳으로 '모셔왔다'고 적은 것이다.

이번에 심은 나무는 겹벚나무로서 천안 광덕면이 그 고향이다. 어느 봄날 광덕사 인근의 시골길을 지나다가 외딴 농가를 지키며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꽃송이를 달고 있는 그 나무에 탄성을 질렀다. 나무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그 풍경은 일찍이 대면하지 못한 자태였다.

올해 봄날에도 그 나무를 친견하고자 그쪽 마을로 우회하면서 꽃을 감상하고 왔었다. 그런데 정말 억만금을 주더라도 가져오고 싶을 만큼 탐나던 나무가 내 곁에 있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것인가. 새 식구를 맞이한 지금,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척 들떠 있다. 오늘 아침에도 그곳에 가서 반가운 마음으로 곁을 맴돌며 안부를 확인하고 왔다.

이번 나무 불사에는 그곳 동네 인근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반의 도움이 컸다. 때마침 나무가 서 있던 그 시골집이 댐공사로 인해 수몰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알려준 뒤, 몇 차례 내 뜻을 집주인에게 전하며 산파 역할을 했다. 그곳의 나무를 대할 때마다 '옹색한 이곳에 오래 머물지 말고 나와 같이 갑시다'하며 인연이 성사되길 발원했는데, 별안간 연락이 왔길래 후다닥 그 사례를 하고 옮겨올 때를 기다린 것이다. 저 나무가 내 눈에 들어온 뒤 3년 만의 일이다.

아침나절부터 장비와 인부를 동원하여 트럭에 싣고 있는 걸 보며 이웃이 "스님은 나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나 봐요"라고 했다. 나는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지만 틀린 표현도 아니었다. 어린나무라면 몰라도 몸집이 큰 나무를 이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성가시고 복잡한 일임에도 기어이 내 사는 곳으로 옮겨가니까 그런 말을 했을 터. 어쩌면 이번에 나는 나무를 옮겨온 게 아니라 세월을 옮겨온 것이라 하여야 맞을 것 같다. 그 시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인생 유전처럼 나무 유전도 있다는 것을 자주 말해왔다. 볼품없는 나무일지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는 주인을 만나면 대접이 달라지고 운명이 역전되는 것이다. 여기 정원에 심어 놓고 보니 시골집에 있을 때보다 더 인물이 훤해졌다. 비좁은 시골집 그 마당보다는 이곳에서 마음껏 가지를 뻗으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호강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이곳과 인연이 다하는 날까지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 저 나무를 더 빛나게 할 것이다. 그게 식물 집사로서의 당연한 의무다.



저 나무와 계약을 마친 뒤부터 한 달 내내 여러 공간을 살피며 어디에 심어야 적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심사숙고를 거듭했다. 결국 찻집 앞마당에 자리 잡았고, 새 식구의 터전을 크게 마련하면서 본래 그곳에 있던 몇 그루 나무들이 자리를 이동하였다. 이미 뿌리를 잘 내린 그 나무들에겐 다소 미안한 일이었으나 전체의 그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하니 큰 나무를 가족으로 들이는 일은 이래저래 조율할 사정이 많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이번에 단행하길 잘했다. 비록 옮기는 과정에서 생채기가 나고 본래의 가지들이 많이 잘렸으나 하루라도 일찍 낯선 대지에 적응해야 자신의 생을 더 찬란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계절이 몇 번 바뀌면 새살이 돋고 새로운 가지가 뻗어 우리 정원의 중심나무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 저 나무에 꽃이 만발하면 많은 이들이 위로받으며 봄날의 찬가를 부를 것이다. 그게 저 나무의 영적인 힘 아니겠는가.

나이 든 나무를 보며 '시간을 견뎌낸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글귀가 생각났다. 사람도 물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시간의 강을 건너고 세월의 산을 넘어야 비로소 한 존재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다. 저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시간을 올곧이 견뎌 낸 세월의 훈장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나무 앞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경외감이다.

나의 정원에 야무진 골격을 드러낸 채 찬 서리 맞으며 의연히 서 있는 겹벚나무가 있어 이번 겨울은 지루하거나 따분하지 않을 것이다. 수시로 그의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걸며 친교를 나누면서 내년 봄에 필 저 나무의 꽃을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동안 다양한 불사를 해왔지만, 올해는 나무 이운불사를 이룩한 뜻깊은 한해로 기록될 것이기에 그 연유를 소상히 말해보았다.

어의운하於意云何

고광 스님 법주사 노전



지난 호號에서는 불경佛經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인 유기有記와 무기無記, 그리고 법설法說과 의설義說에 대하여 대충이나마 훑어보았습니다. 의설義說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강경金剛經에서 쓰였던 용례用例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통된 경전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글에서 예시한 '어의운하於意云何'라는 경구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호에서는 지면 관계상 '의意'가 '마노(意 mano)'를 의미한다면서, '어의운하於意云何'를 '마노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했는데….'라고 읽어야 한다고만 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해가 부족하겠다 싶었는데, 법주회보의 집필진으로부터 '범본梵本에도 마노(mano)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범본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읽어야 합니까?'라는 칭찬 해 주고 싶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글이 그에 대한 답변이 될 겁니다.

범본에는 'subhutimetadavocat tatkiṁ manyase'로 쓰였는데, 이 문장을 현대 범어에서는 '수보리(subhuti)에게 그것에 대해 말하다(metadavocat),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는가? (tatkiṁ manyase)'라고 번역합니다. 구마라집은 이것을 '수보리須菩提 어의운하於意云何'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글은 범어梵語 강의가 아니므로 한역漢譯 경전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한문은 명사名詞 중심의 고립어孤立語이다 보니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그에 상응하는 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10만 자字도 넘는 글자가 강희자전康熙字典에 수록되기에 이릅니다. 물론 영어도 명사名詞 중심의 언어이다 보니 옥스퍼드 사전 역시 '매우 많은 명사名詞가 수록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언어적 특징 때문에 '말한다.'라는 뜻의 글자도 한역 경전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역 경전에서 '말하다.'라는 표현으로는 왈曰, 언言, 어語, 설說, 운云, 백白, 고告, 개皆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글자는 그 쓰임새와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당연히 그 의미가 서로 다르기에 그에 맞는 글자를 만들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쓰는 언어는 형용사와 서술어가 발달된 언어이다 보니 '말한다'라는 단어에 형용사만 바꾸어서 덧붙여 말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에, '말한다'라는 단어 하나면 여러 가지 상황을 표현하는데 충분합니다.

우리는 한역 경전에 '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잘 살펴볼 때 비로소 경전의 말씀이 이해될 것입니다. 물론 후대에 오면 각각의 단어들이 비슷하게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적어도 구마라집 삼장三藏만큼은 단어의 뜻을 잘 살려 매우 자연스럽게 번역했습니다. 필자가 아는 범위 안에서 위에 열거한 각 단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그 글자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단어는 '가로 왈曰' 자입니다. '입 구口'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나타내는 기호記號 '一'을 합해서 만들어진 글자로 '입을 벌리고 말함'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것을 상형문자로 보고 '입과 날숨을 본떠 목소리를 내어 말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번역된 경전에서는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말한다.', '지껄이다.', '말한다.' 등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반야심경의 즉설주왈卽說呪曰은 '곧바로 설명해 줘도 ~따위의 주문이나 지껄입니다.'라고 해석해야 옳다고 하겠습니다.

'말씀 언言'은 갑골문을 보면 '입 구口' 자 위로 나팔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대고 말하듯이 '(뜻을 알리려고) 말하다.'라는 뜻으로 출발한 글자입니다. 갑골문甲骨文에서의 '언言' 자는 '소리'나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기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금문金文에서는 획 하나를 추가해 '소리 음音' 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금강경의 이백불언而白佛言은 '그리고 부처님께 고백하며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의 '말씀 언言' 자와 함께 등장하는 비슷한 단어 '말씀 어語' 자가 있는데, 이것은 '말한다'라는 '언言' 자에 '나'라는 뜻의 '오吾' 자가 결합된 글자로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말한다.'라는 뜻으로 쓴 글자입니다. 경전의 용례에서 보면 '초선정수시언어적멸初禪正受時言語寂滅'이란 초선初禪의 정의가 나오는데, '초선이 바르게 받아들여졌을 때는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 고요히 소멸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견正見'인 '올바른 견해가 확립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금강경에도 여어자如語者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진리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말씀 설說' 자는 말씀을 뜻하는 '언言' 자와 기쁨을 뜻하는 '열兌' 자를 결합한 글자로 '기쁘도록 상세하게 설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대중을 상대로 상세하게)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예컨대, 금강경엔 '세존世尊 설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說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이란 말이 나오는데, '세존께서는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말한 게 아니라 '이해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를 운云' 자는 '몰랐던 사실을 알도록 일러준다.'라는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본래 구름을 본떠서 그린 글자로 '구름'이란 뜻으로 쓰이다가 '구름을 바라보듯 알 수 있게 가르쳐 주다.'라는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운云'에 '비 우雨' 자를 더하여 '구름 운雲' 자를 만들어 구별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응운하주應云何住 운하항복기심云何降伏其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면 '대응하는 게 어떻게 머문다고 일러주셨고, 어떻게 항복하라고 일러주셨기에 그런 마음 작용(아뇩다라삼먁삼보리)이 되었습니까?'라는 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응應'을 '응당히, 마땅히'로 번역하지만, 구마라집은 '응한다, 마주한다'라는 뜻으로 번역했고, '마땅히'라는 말은 당當자를 써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응하는 게 어떻게 머무느냐에 따라서 '자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대응하는 것이 실재라면 자아도 실재하는 것이며 대응하는 것이 환상이라면 자아도 환상이 됩니다. 그래서 응하는 것이 어떻게 머무는지에 따라 잘못된 생각을 항복받아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마음의 작용이 되는지가 결정되기에 수보리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흰 백白' 자는 희다는 뜻도 있지만, '고백하다, 알리다'의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로 '감춘 마음이 없이 깨끗하게 완전히 드러내 고백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백불언白佛言'이라는 표현은 '부처님께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고백하여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알릴 고告' 자는 '몰랐던 사실을 조목조목 알려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보고서報告書, 고지告知 등의 용례로 씁니다. 그러니 불고수보리佛告須菩提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 개皆자도 있는데, 이 글자는 현재 '모두, 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구마라집 번역에서는 '한결같이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체개고一切皆苦와 일체행고一切行苦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체개고一切皆苦는 '일체(브라만과 아트만의 관계)이기에 괴로움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라는 뜻이고, 일체행고一切行苦는 '일체로 조작되어 괴로워졌다.'라는 뜻으로 이 두 표현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말하다.'라는 표현에 대해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나마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지면 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못내 아쉽지만,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잡아함경'의 '법설의설경法說義說經'을 토대로 법설과 의설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후에는 조계종曹溪宗의 소의 경전으로 많이 독송하는 금강경金剛經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분석하여 연재할 예정입니다. 꾸준히 읽으시다 보면, 난해했던 경전이 분명히 이해될 겁니다.

부처님의 그윽한 향기를 머금은 응향각凝香閣에서 독자들의 혜안慧眼이 열리길 바라며….

1500년사찰 법주사 템플스테이
[2023년도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

속리산의 품에 안긴 호서제일가람 법주사에서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법주사의 품 안에는 천 년의 세월 속에도 그 아름다움과 격조를 발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이 가득합니다.
법주사는 천 년이 넘는 역사를 통한 미륵신앙이 전해져 내려왔던 곳으로서 기도와 예불 수행 등
기초적인 불교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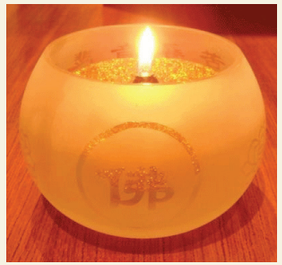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법주사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N | 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을사년 인등접수 및 연장안내



을사년乙巳年 각단 인등(산신각, 원통보전, 대웅전) 연장신청 및 신규접수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불보살님께 꺼지지 않는 광명의 빛을 밝히는 인연으로 살아가는 앞길을 밝히고 사업성취 시험합격 건강쾌차, 자손점지, 무사안전 등 마음속 간절한 염원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 **동참보시 : 1인 7만원 (1년)**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기다리시는 불자님이 많으셔서 별도의 장기간 연장신청이 없으신 분은 소등하겠습니다.

2024. 12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11.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2 2	3 3 신중기도회향 합창단법회	4 4	5 5	6 6	7 대설 7 광명진언기도
8 8 약사재일	9 9 다도반법회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동지기도 입재 보름	16 16 미륵재일	17 17	18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9 19	20 20	21 21 동지 (18:21)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22 22	23 23 다도반법회	24 24 관음재일	25 25 크리스마스	26 26	27 27	28 28
29 29 월남대종사 다례	30 30 천용큰스님 다례	31 12.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소식



11월 15일 동안거결제



11월 22일 동안거포살법회 비구



11월 22일 동안거포살법회 비구니







11월 25~26일
김장울력에 동참해주신
법주사 각 신행단체와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륵재일 기도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법주사에서는 매월 음력 16일 미륵재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미륵부처님의 가피 받으시어 불자님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기도일정 2024년 **12**월 **16**일 〔매월(음) **16~18**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초하루 신중기도

매월 초하루 3일간 올리는 신중기도는 매월초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게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을 잘 열어가기 위한 신심의 발로입니다.
화엄성중님께 예를 다하여 정성껏 기도해 보세요.
그 가피공덕이 세세생생 전해 질 것입니다.

기도일정 2024년 **12**월 **1~3**일 〔매월(음) **1~3**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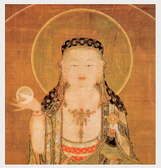
광명진언기도

광명진언은 '광명'이라는 단어의 뜻 그대로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진언입니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인연 지으시어 공덕이 나날이 수승해지며
늘 성취하시는 일상을 이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일정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2시까지)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지장재일기도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도나 공양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제자로
정진하겠다고 발원을 세우고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우고 발심을 할 때 비로소 그 원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는 공덕을 지으셨으면 합니다.

기도일정 2024년 **12**월 **18**일 월요일 〔매월(음) **18**일〕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미묘하고 거룩한 큰 말씀이란 뜻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비의 주문으로 병고를
겪거나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중생들을 치유하는데 영험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인연 지으시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평안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일정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2시까지)
동참보시 한가정 **2**만원

생일불공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없이 기쁜 날, 신도님과 신도님 가족분들의 생신을 맞아
부처님전에 정성으로 앞날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축원공덕 지으세요!

동참보시 **2**만원 (생신일로부터 3일간 기도축원 올려드립니다)



법주사 기도동참 계좌안내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갑진년 동지기도



한해의 마지막 절기인 동지는 24 절기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이 날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다시 길어집니다. 하여 동지는 '작은설'이라고도 하며
한 해의 시작으로 보아 묵은해를 보내고
순조롭게 새해를 맞이하기를 염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감사와 참회를 하고 새해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서원을 세우며 정성스럽게 팥죽을 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비의 손길로 이웃과 함께 팥죽을 나누는
공덕을 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도님들 법주사 갑진년 동지기도 동참하시어 묵은 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함에 있어서 부처님 전 경건하게 기도하여 모든 장애와 액난을 극복하시고
나눔의 공덕 지으시는 맑고 향기로운 불자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일정 : 2024년 **12**월 **15**일(일) ~ 2024년 **12**월 **21**일 (토, 동지)

동참보시 : 한가족 **3**만원 [동지팥 · 찹쌀 · 설판 (떡/과일 외 나눔꺼리 접수받습니다)]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 법주사)



送舊迎新

불기2568년 갑진년의 끝을 알려주는 달력도 이제 한 장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쏘아놓은 화살처럼 정말 빨리도 지나갑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세웠던 계획을 돌이켜보니 남은 한 장의 달력이 아쉽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한해동안 항상 저와 함께 부처님께 일심으로 기도 해주신
우리 법주사 신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스님들은 신도님들을 부처님께 인도하는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신도님들 또한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 걸어가고 있는 도반이기도 합니다.
가끔 삶이 힘들어 잠시 부처님을 떠올리시기 힘드시더라도 항상 스님들을 믿고 의지하세요.
과거도 미래도 시간을 붙잡을 순 없지만 오직 부처님 도량에 함께하는
저희 신도님들의 오늘이 조금 덜 힘들고 덜 아프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좋은 인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부처님의 살핌안에 계십니다.
가정에서 일상에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다소 미뤄지고 부족하여도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한해동안 좋았던 기억들을 지팡이 삼아 새해는 새로운 꿈, 희망, 행복을 가득 품고
한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조금 더 행복해지시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고 계신 신도님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신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속리산 법주사 주지 정덕 두손모음 –

